



2015학년도 1학기 정기 강의평가
• 기간 : 2015년 06.01(월) ~ 2015년 06.25일
• 대상 : 서울·국제캠퍼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 대상 강좌 : 학부 및 대학원 전체 개설 강좌
• 성적 열람 및 공시기간 : 2015년 07.01(수) ~ 2015년 07.03(금)

예디, 공대 카페 임대차분쟁 9개월 째

KMC-KHAM-글로벌다이닝-개인사업자 꼬리무는 영업권 하청

KMC 명도소송 진행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국제】 예술디자인대학관(예디)과 공과대학관(공대)의 카페가 임대차 분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매장에서 카드결제가 안되는 것도 이 임대차 분쟁탓으로,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운영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12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5월 학교법인 경희학원에서 전액 출자해 경희매니지먼트컴퍼니(KMC)를 설립한다. 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였다. 이어서 KMC는 자회사로 케이에이치아이자산운용(KHAM)을 세워, 캠퍼스내 카페를 중심으로 식음료사업을 벌였다. KHAM은 카페사업을

위해 예디와 공대, 서울캠퍼스 삼 의원기숙사 총 3곳에 대해 학교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KHAM은 카페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식회사 글로벌다이닝과 '위탁운영계약'을 맺어 '외주'를 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다이닝'은 원자재를 공급하고 직원을 고용해 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KHAM은 발생한 '매출의 88%'를 글로벌다이닝에 지급했다. 당시 수익에 대해 KMC 측은 "카드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세, 광열비 등도 KMC가 학교에 납부했다. 더불어 '학생편의 및 복지증진' 명목으로 카페 인테리어까지 교비로 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88%'를 지급하는 조건



예디 1층·공대학생 식당 옆 카페가 파행 운영 중이다

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이후 2013년 7월, KMC는 자회사 KHAM의 식음료 사업부문을 이관 받아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운영의 결정적인 배경은 '장애인고용 분담금은 민간기업 기준 상시근로자의 2.7%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범률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2013년 12월 기준 경희학원은 약 7억원을 납부했다. KMC 흥상일 실장은 "KMC가 직접 카페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이 직원이 학교의 고용자 수로 인정돼 부담금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4면으로 이어짐

O&P 학과평가 최우수

단과대학행정실, 한의대 최우수

미정원, "정원감축 지표 사용계획 없어"

'2014 O&P평가' 결과발표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2014 'Organization & Program Review(O&P)' 평가 결과 중 학과부문에서 아동가족학과,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4개 학과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단과대학 행정실 부문에서는 한의과대학이 최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O&P평가는 우리학교의 자체분석을 통해 한해동안 각 단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기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O&P평가가 우리학교 학과간 비교에 그쳐, 학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평가에서는 주요대학과 비교해 결과를 산출했다.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김성환 계장은 "생물학과의 경우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비율이 높아 다른 학과에 비해 취업률이 낮다"면서 이번 평가는 다른 대학의 유사학과와 비교해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아동가족학과,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최우수	우수
인문·사회·체육	아동가족학과	경영학부 사회과 주거환경학과 철학과 Hospitality경영학부
자연·공학	원자력공학과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응용물리학과 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의·약·간호학	-	간호과학대학 의과대학
예능	-	무용학부
전문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특수원	-	관광대학원
단과대학 행정실	한의과대학	간호과학대학 공과대학 무용학부

▶4면으로 이어짐

인간들을 이야기하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54

고 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리디아의 왕 칸다올레스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다.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칸다올레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신하 기계스에게 왕비의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했고 급기야는 그녀의 벗은 몸을 몰래 훔쳐볼 것을 제안했다. 왕의 거듭된 성화에 밀려 기계스는 왕비의 침실에 숨어들었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훔쳐본 뒤 빼져나왔다.

다. 기계스의 도망가는 뒷모습을 본 왕비는 다음날 그를 불러 정숙한 여인의 몸을 볼 수 있는 자는 남편 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기계스가 스스로

자결하던가 아니면 왕을 죽이고 자신의 남편이 되던가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요구했다. 기계스는 칸다올레스를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어 왕비를 자신의 아내로 맞았다. 리디아인들은 왕을 살해한 기계스에 대해 분노했지만 멜로이의 신탁이 기계스를 지지하자 어쩔 수 없이 그를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 신탁은 기계스가 신관들에게 은밀하게 제공한 금은의 덕이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역사》(BC 450-420 추정)는 리디아의 메름나다이 왕조를 창시한 기계스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기계스는



《역사》의 본래 주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국가들의 전쟁이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훗날 플라톤의 《국가》에도 등장하지만 신화처럼 묘사되는 플라톤의 이야기에 비해 헤로도토스는 리디아 역사의 일부분으로 기계스를 설명했다. 신화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고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헤로도토스의 방식은 당시 매우 새로운 것이었으며 그래서 키케로는 그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역사》의 본래 주제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국가들의 전쟁이지만 실제 내용은 잡다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사령(명) 수습기자

강경진(스페인어학 2014)
강규연(의류디자인학 2014)
고상아(연극영화학 2015)
김구래(경영학 2012)
김다솔(중국어학 2015)
김도업(정치외교학 2012)
김예준(일본어학 2015)
김정원(유전공학 2015)
김종원(화학 2015)
류제원(지리학 2015)

다음 제1592호는 6월 8일에 발행됩니다
대학주보 온라인 기사는 계속 연재됩니다
media.khu.ac.kr/khunews

박새롬(언론정보학 2014)
양진원(생물학 2014)
이성민(프랑스어학 2015)
이소진(일본어학 2014)
이수형(경제학 2015)
장연수(중국어학 2014)
정혜빈(원예생명공학 2015)
조민호(관광학부 2015)
최병현(경영학 2015)
최재원(철학 2015)